꼭스놀교회소식

목사님, 그리고 제자교회 성도님, 평안하신지요?
캄보디아는 여전히 덥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시작 되었지만, 아직도 비가 내리지 않는 한 낮은 35도를 넘나들며 체감온도도 40도를 넘나 듭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가면 다들 너무나 좋아한답니다. 요즘 캄보디아에는 비싸지 않은 수영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30여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다녀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덥고 힘든 하루에 힘이 되어주는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꼭스놀에서의 사역이 더욱 더 성장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이 마을 사역을 시작할 때 10살 언저리이던 아이들이 14살이 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아이들이 여전히 학교를 가지 않으니,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14살 전 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프놈펜으로 일을 찾아 가거나, 아니면 씨엠립 시내로 일을 찾아 나갑니다. 14,5 살 짜리 아이들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노가다판에서 씨멘트를 이기거나, 벽돌을나르거나, 그렇게 잠시 일을 하다, 멈추다를 반복합니다. 남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의 삶도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있지만, 아이들은 저희에게 '그만 좀 잔소리 하라'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삶에 소망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무너진 삶으로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일 학교에 가지 않고, 나중에는 다시 학교가는 것이 어려워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을 만나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들도 이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니, '뭐하러 이런 얘들을 도와주냐, 결국 또 학교 안 나오고 빠질텐데, 그만 데리고 와라' 합니다. 학교도, 스스로도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결국 복음외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외에는 삶에 소망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일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기고,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에 대한 삶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가고싶어하고, 내일을 꿈꾸며, 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도록, 이 아이들이 소망을 갖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나른'과 동생 '로앗', '껌섣'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빠는 오래 전에 죽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아이들만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은 흰 개미들이 갈아먹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진 않은 집입니다. 구멍이 송송난 지붕때문에 비만 오면 집 안이 진흙범벅이 됩니다. 다행이도 이 번에 집을 다 드러내고 새로 기둥을 세우고 양철로 지붕과 벽을 만들어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마을 '꼭스놀'이 '압사라-개발제한구역' 이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가 없는 지역이어서 사정을 하고,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새로운 양철은 안되고 사용하던 양철을 이용해 집을 보수하라고 해서 조금 보기에는 새 집 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안에 나무 기둥들도 다 바꾸고 이전보다는 훨신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잡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함께 고치려고 했던 사라이의 집은 압사라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아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이의 집도 빗 물이세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미 압사라 허가없이 집을 많이 고쳐서 압사라에서 본보기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 상황을 이해하고 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오후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동안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가르쳐주고, 공부도 함께하고, 영어와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성장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단기선교로 와서 섬기는 이주완청년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악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떠나는 날 까지 기쁨이 넘치는 사역이 되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주완청년은 8월 중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버리보 사역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꼭스놀 사역을 돕고, 내일이 없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위하여 시작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이후 아직까지 씨엠립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번 달은 비수기라 그런지 씨엠립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치은선생과 팀이 잘 버텨주고 있지만,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버리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신 메뉴를 만들어보고, 빵도 여러가지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 하시는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기억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기도의 손길로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 달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마음이 이 땅에 심겨지기를 소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달 오후 반 아이들을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3명의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집니다. 늘 감사한 마음뿐 입니다. 바뀌지 않을 듯, 부서진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넘쳐 흐르길 기도부탁드립니다. 낙망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늘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이성헌 선교사